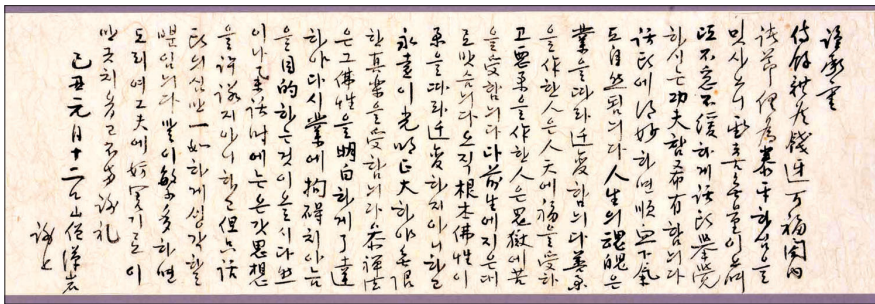


한암(漢岩) 선사(禪師)의 편지 (5)

### 불성만이 업에 구애받지 않아



한암 스님이 조창환 선생에게 보낸 편지(답장)

#### 조창환(曹昌煥) 선생에게

보내주신 편지는 잘 받았습니...

급하지도 않고 느슨하지도 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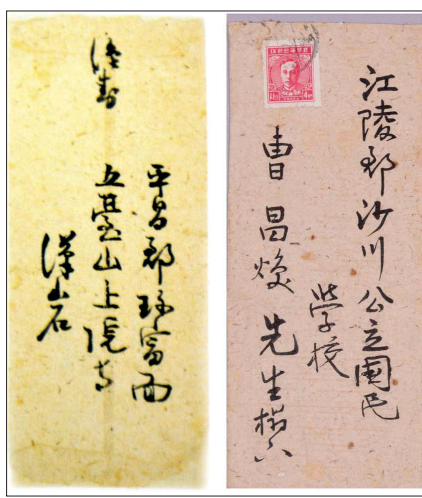
그리고 인간의 혼백(魂魄)은...

참선법은 불성을 명백하게 요...

기축년(1949년) 원월(元月, 1월) 12일 산승(山僧) 한암 올림

이 편지는 조창환 선생에게 답한...

내용은 화두참구에 대한 것이다...



올라가는 상기병이 생긴다. 상기병이란...

또 사람은 죽으면 생전에 지은 업에 따라...

그러나 화두를 들 때에는 온갖 생각을...



윤창환(도서출판 민족사 대표)

# “명상은 마음 알아차리는 수행 자기 알게 되면 세상도 함께 행복”

## 김승석 변호사 (제주 관음사 신도회장)

이른 새벽, 자신만의 행복 공간 ‘출리산방(出離山房)’에 홀로 가부좌를 틀다...

#### 부처님 원음과의 대화

김승석(조계종 제23교구본사 관음사 신도회장·제주 불교신문 편집인) 변호사에게 아침 명상 수행에 대해...

마음의 고향, 정도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명상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몸과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김 변호사는 언제부터 자비명상으로 하루를 밝혔을까...

그의 본격적인 수행 시작은 지난 2006년 여름에 10평 남짓한 토굴 ‘출리산방’을 마련하면서부터...

황 교수와 김 변호사는 한 달에 두 번 출리산방에서 1회, 서귀포에서 1회씩 각각 정기법회를 연다...

그 지인의 소개로 초기불전연구원에서 출판한 <다가니 깨어(장부)> <앙국따라 니까야(중지부)> <정정도론>...

특히 명상클럽 ‘여덟 겹의 길’은 김 변호사에게 사성제와 팔정도(八正道)에 대한 교리에 눈 뜨게 했고...

심은 팔정도의 일곱 번째 정념(正念)으로 이어졌다.

“여기서 염(念)은 생각할 염이나, 그 진의는 생각(思)이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일으켜 대상을 겨냥하는 것을 말합니다...”

김 변호사는 환갑인 지난 2009년 사법처 수행에 대한 정보를 재가불자들에게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 매일 40분 명상으로 아침 열어

#### 범우들과 ‘여덟 겹의 길’ 창립

#### 꾸준히 사성제 팔정도 교리 공부

#### 사피 수행, 위빠사나의 태반 같아

#### 고시생 시절 ‘불자 법조인’ 발원

#### 사법연수원 신행단체 ‘제석회’ 조직

#### ‘쟁’ 무량심으로 생계형 범죄자 변호

#### ‘제주불교’ 발행인·관음사 신도회장

#### 제주불교 지평 넓히기에 전력

이 책을 집필하면서 주로 심야에 출리산방에서 경전 공부를 더 많이 했고, 사피(sati) 수행이 ‘사마타’와 ‘위빠사나’ 수행의 태반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을 스스로 체험하게 된다.

####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불심

스님 못지않은 수행의 깊이, ‘그는 어디서 왔는가’라는 화두가 드리워진다. 태어나면서부터 김 변호사는 불연(佛緣)이 매우 돈독했다...

김 변호사가 태어난 곳은 세계자연유산인 성산포 일출봉에 자리한 제주시 성산읍 성산리. 그 중턱에 동암사가 자리하고 있고 약 300여 미터 떨어진 곳에 그가 태어나고

지란 집터가 있다.

김 변호사의 어머니가 동암사에 불연이 닿기 시작한 것은 어머니의 나이 25세 때인 지난 1947년경이다...

김 변호사가 태어나서 몇몇이 무렵, 약 3개월간 설사를 해서 죽기 전까지 이르렀다. 모두가 어렵게 살던 시절이고 농어촌 지역이라 항생제 같은 약과 주사를 구할 수 없어...

그때부터 그의 어머니는 매년 나를 동암사로 데리고 가서 생일불공을 올렸다.

김 변호사는 “결혼해서 사법시험 공부를 할 때에도 저는 못가지만 어머니는 동암사에서 빠짐없이 생일불공을 올렸다”며 “생일불공을 통해 어머니는 나와 불교와의 인연을 맺게 했고, 먼 훗날 불교공부를 하도록 좋은 과보를 맺게 했다”고 회상했다.

#### ‘불자’ 변호인으로 살기 위해

김 변호사는 군 입대 전, 소실가가 되겠다는 서원을 세워 국문학과를 다녔다. 하지만 군 제대 후 “법을 통해 사회를 바꿔야겠다”는 서원으로 바꾸고 본격적으로 사법고시를 준비했다...

그 무렵, 한 평생을 함께할 인생 동반자를 만난다. 지난 1981년 12월 어머니와 지인의 소개로 부산에서 지금의 아내와 첫 만남을 보았다. 이 여자와 결혼하겠다는 마음을 먹게 된 계기는 불교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이다...

김 변호사는 마지막 사법시험(2차)을 치르고 나서 지난 1985년 6월경 충북 제천 천태종 구인사사 4박5일간 철야정진기도에 들어갔다. 그때 ‘관세음보살’ 염불수행에 정진하면서 사법시험에 합격하면 참 불자가 되겠다는 원력을 세웠다.

사법시험 합격 후 사법연수원 시절에 불자 연수원생들을 중심으로 한 신행단체인 ‘제석회’를 조직하는 등 그 원력을 지키고자 부처님 전에 약속했다. 그 당시 법사스님은 최근 원력에 드신 무진장 스님으로 매일 정기법회를 열면서 신행활동을 해나갔다.

변호사 개업 후에는 특별한 신행활동을 하지 못했지만 불자 법조인임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특히 형사사건 변호를 맡다보면 범죄의 피해자와 많이 접하게 됐다.

#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열침의효능 헬스벨트 금강약돌 온열복대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원적외선 ‘열침’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속뜻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식약청의료용구 개인용온열복기 : A83060호  
식약청 의료용 전자기 발생기 : A85020호  
전기용품 안전인증 : HH07236-5004A호  
전자파 장애실험필, 전자파 환경인증  
LG화재 배상보험 가입  
특허청 실용신안 출원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기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볼이 80°C이상의 고열이 발생되어 착용시 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마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 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 \*아랫배가 냉하거나 손,발이차서냉
- \*오심, 구역, 과민성, 당뇨, 전립선
- \*생리통, 변비, 냉증, 신초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4일 먼저 신체실험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님들께서 체험 후 좋은 치료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 \*입금계좌 : 농협 053-12-125418 강환영
-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합니다.
- \*대리점 및 딜러모집 (조합자극건강매트, 오심견조기, 요추베개등 자매품다양)



김승석 제주 관음사 신도회장(제주불교 발행인)이 올 4월 26일 봉축을 맞아 열린 법회에서 발언문을 낭독하고 있다.



2011년 수행 모임 회원들과 성지순례로 찾아가던 인도 쿠시나라의 '열반당'에서 김승석 변호사가 참배를 하고 있다.

그 중에서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거나 가난때문에 절도를 해서 구속되는 청소년들이 많았다. 대부분 이런 사람들은 초범인데,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 석방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김 변호사는 이런 부류의 범죄자 석방을 변호하는 것이 바로 '비무량심(悲無量心)'의 발로라고 보았다. 어린 청소년들이 범죄의 터널에 들기 앞서 선견 씨앗을 심을 수 있도록 수없이 변론을 맡았다.

이 밖에도 김 변호사는 "민사사건의 경우에도 사건의 경중 또는 의뢰인의 빈부를 고려해 차등으로 수임료를 계산, 그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것도 비무량심으로 보아 지금까지 변론을 해왔다"며 "그래서 그런지 변호사 수임료가 과다하다고 불평이나 쓴 소리를 들어 본 적이 거의 없다"고 너털웃음을 짓는다.

제주불교 발전을 위해서

김 변호사는 법조인으로서 뿐 아니라 제주불교계의 발전을 위해서도 헌신했다. 1989년 현재 제주불교신문의 전신인 법보신문이 발행했던 어린이신문(월간)의 발행인으로서 어린이포교에 관심과 애정을 표시해 왔다. 이런 불교 언론활동을 반영해 지난 1995년 제주불교신문을 법인체로 등록하고 대표이사에 취임을 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불교 언론인으로서 불교신문이나 사설을 쓰고 있다.

"제주불교신문은 제주지역의 유일한 불교 언론매체입니다. 창업보다 수성이 더 어렵고 이보다 경장(更張)이 더 어렵다는 금언이 있듯이 기도 중심의 제주불교문화를 지혜와 자비 바라밀 수행 문화로 변화시키기 위해 제주불교신문 기능을 쇄신해 나갈 것입니다."

지난 25년 동안 불교 언론을 통해 제주불교 발전에 해안을 제시했다면, 지난해 9월에는 제23교구 관음사 신도 회장에 취임하면서 본격적인 실천불교에 앞장서고 있다.

그는 신도회 조직을 새롭게 꾸미고 공덕을 많이 짓는 수행공동체로 바뀌 보려고 애쓰고 있다. 또한 본사와 말사 신도회 간의 수평적 교류와 여러 실행단체와의 협력, 연대의식 확대 등을 통해 제주불교의 지평을 넓혀 나가



김승석 변호사는 ... 1949년 제주 선상읍에서 태어난 김승석 변호사는 건국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고시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시절에는 불자 연수원생들의 모임인 '제석회'를 만들어 활동할 정도로 돈독한 신심을 가졌다. 1988년 고향 제주에서 변호사를 개업했으며, 한라 어린이 불교신문 발행인에 취임했다. 1995년 (주)한라불교신문(현 제주불교신문) 초대 대표이사 및 편집인에 임명됐으며, 현재에도 제주불교신문 편집인으로 활동 중이다. 1998년 제3대 정무부지사를 지냈으며 제주비평 발행인, (사)공동체적식개혁운동 제주협의회 공동대표 역임했다. 현재 제3기 제주도사회협약 위원회 위원장과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로 있으며, 조계종 제23교구본사 관음사 신도회장으로 활동하면서 제주불교 발전에 매진하고 있다. 저서로는 <제주불교 100선> <제주의 현실, 꿈, 미래> <나홀로 명상> 등이 있다.

려고 노력하고 있다.

김 변호사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이란 무엇일까. 그 질문에 그는 "불교는 이 폭포수와 같은 흐름을 건너 피안(彼岸)에 이르게 하는 유일한 길이기에 나에게 의지처가 자안식처"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에게 불교는 윤회의 바다에서 생사가 거듭되는 이 사바세계의 거친 폭포수와 같은 흐름을 속에서 자신을 온전히 지켜낼 수 있는 힘과 같았다.

그래서 일까. 그는 다음 생에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면 출가 수행하겠다고 말한다. 그래서 금세에 선업을 쌓아 예류도(성자의 흐름에 드는 방법) 이상을 성취하려고 한다. 그의 마음은 늘 열반을 지향하고 있다.

그래서 '작은 어리석음이 남아 있어서 아직은 깨달음을 얻지 못한 중생'이라는 뜻이 담긴 소치(小癡)가 김 변호사의 법명인 듯하다.

제주불교 이병철 기자

전법일기

군승, 400년 만에 일본 땅 밟다

"환영! 한국 군승단장 일행! 400년 만에 방문한 승장들을 환영합니다!"

일본 나라타 공항에 대형 현수막이 나타났다.

군승단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일본 진토 진종의 초청으로 일본에 방문했을 때다. 당시 군승으로는 사명대사 이후 400년 만에 군승단이 공항에 도착하자 일본 불자들은 열렬한 환영을 보냈다.

공항에 마중 나온 일본 사람들은 우리를 가리켜 승장이라 하였다. 우리들을 사명대사와 같은 반열에 올려준 것이다. 나는 마치 사명대사가 왕사 자격으로 일본에 들어갔을 때처럼 무슨 담판을 지으러 가는 것도 아닌데 괜히 어깨에 힘이 들어갔다.

왜란 이후 죽음을 무릅쓰고 적지인 일

지 말라. 그 업보가 언젠가는 돌아온다. 다른 이들이 살인을 저지르다고 부처를 섬기는 너희들까지 그래서야 되겠느냐. 부처님이 뻔히 보고 계신다."

왜군 두목은 절마당에 묶여 있던 유점사 스님들을 풀어주고 산문 앞에 '고승이 머무르니 함부로 출입하지 말라'는 표목을 붙여놓고 떠났다고 한다.

이때 이후 나는 언제나 사명 대사와 같은 승장의 자세로 군승 생활을 보내야겠다고 다짐했다. 살생을 막기 위해, 또 살생을 줄이기 위해 부득이 하게 승려의 신분으로 칼을 들었던 그들을 떠올리며 나의 삶을 참회했다.

사실 우리나라가 국난의 위기에 처했을 때는 언제나 승군들이 최후의 보루가 되었다. 임진왜란 당시에는 밀려오는 왜군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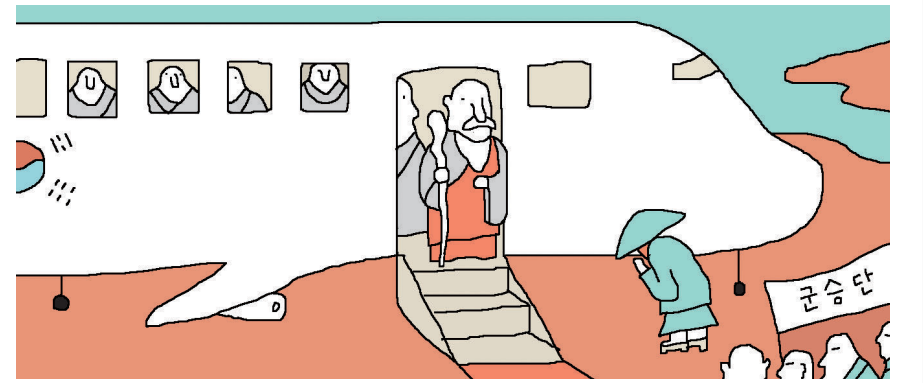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본에 들어가 포로송환 교섭을 하고, 일본 문사와 무사들에게 한껏 조선인의 기개를 드러낸 사명 대사에 비교되니 부끄러움이 앞섰다. 그러면서도 나는 마치 그 혼을 쓴 사람처럼 저절로 어깨가 펴지며 당당하게 일본사람들을 대했다. 속으로 역사적 책무를 짊어졌던 사명 대사의 기개를 닮아 야겠다고 생각했다.

왜란 당시 유점사에서 사명 대사의 기개가 왜군을 굴복시킨 적도 있었다. 유점사에서 일본군 수십명이 들이닥쳤는데 법당 앞에 오줌을 누는 왜군을 보고 사명대사는 호통을 친다.

"이놈아! 그러고도 지옥고를 면할 줄 알았느냐!"

사명 대사가 소리를 치자 일본군들이 우르르 물러왔다. 절의 성보를 있는대로 내놓으라는 일본군 두목에게 사명대사는 "너희가 섬기는 부처나 우리가 섬기는 부처나 다 같은 부처이거늘 훔쳐서 가져가면 더 영험하더냐!"며 "기왓장 하나라도 들고가면 죽는대로 지옥에 떨어질 것"이라고 당당히 말했다.

기세가 밀린 일본군에게 사명 대사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전장을 평계삼아 함부로 사람을 죽이

상대로 영구 스님 휘하 승군과 서산·사명대사가 이끈 승군이 최전선에서 싸웠다.

진주대첩에서는 해인사 신열 스님의 승군, 행주대첩에서는 전라도 지역 승군이 참전했다. 이순신 장군 휘하의 승군에도 승군이 1500명이 있었다고 한다. 왜란 이후 공군(軍功)으로 공신이 된 스님이 무려 34명에 달했다.

승군들의 활약은 병자호란 때도 이어져 남한산성과 북한산성이 모두 승군이 주둔하는 병영이었으며, 특히 각성 스님이 주도해 쌓은 남한산성 내 남한치영은 의승군들의 집결지였다. 승군들은 성안에 9개 사찰을 지어 주둔하며 불도를 닦으며 국방을 책임지기도 했다.

이러한 역사의 연장선 상에 내가 서 있다고 생각하니 저절로 숙연해졌다.

지금도 나는 마음을 심란할 때면 나라타 공항에 펼쳐이던 현수막을 떠올린다.

그리고 진정으로 우리나라와 불교를 수호하는 승장이 되기를 발원한다.



자랑 스님 (前 군종교구장·용인 반이선원 주지)

찬덕연등의 기술을 보유한 연등시공 전문기업



특가행사 진행중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연등시공



만 월 등



바 립 등



자 비 등



정품 LED전구



※LED 전구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1년 하루 6시간 전기요금 : 98원/kwh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시설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팔각주름등



공 단 등



팔각 접 등



인 등



연꽃만월등



연 화 연 등



차 걸 이



보련기획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문현로 189번길 27

H·P 010-9446-1862

전화 031)526-2201 / 031)526-2202